

보도설명자료

(’18. 6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수원 이사회가 탈원전 앞장...“국민에게 비용 전가”

(’18. 6. 26, 조선비즈)

1. 기사내용

- 지난 40년간 산업의 근간을 이뤘던 원자력 비중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. 탈원전 정책의 과제와 문제점을 진단해본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원자력 비중은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인 바, 원자력 비중을 갑자기 축소한다는 의미의 기사 내용은 잘못된 사실 인식임
- 원자력 비중은 설비용량 및 발전량 기준으로 ‘22년까지 33.8%로 유지하고, 이후 장기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며, 갑자기 축소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

< 연도별 원전 설비용량(피크기여도 기준) 및 발전량 비중 >

(출처 :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)

구분	2017		2022		2030	
	실적치	비중	전망치	비중	전망치	비중
설비용량(GW)	22.5	20.9%	27.5	22.4%	20.4	16.6%

* 발전량 비중 : (’17) 26.8% → (’22) 33.8% → (’30) 23.9%

- 정부는 전력수급, 전기요금, 지역·산업·인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
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19)

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(044-203-5242)